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의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백혜경 · 남시웅 제주대학교

The connection of scuba diving participants' frequency of participation, loyal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ak, Hye-Kyung · Nam, Sa-Woong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nection of scuba diving participants' frequency of participation, loyal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club members who visited Jeju to do scuba diving. And then by setting them as population, I sampled with convenience sampling which is one of non-probability sampling. Four hundred forty subjects participated the survey but two hundred sixty five were used in actual analyzation excluding those who filled survey twice or submitted insufficiently. The survey forms used

for this paper were cognitive and emotional condition test form from the Yang Meyong Whan's reformed survey form (2000) to be suitable to the situation of leisure sports activities and his test form on fondness degree of tennis(1998) was used by adjustment and complement to be suitable to this study. Used statistical measures to analyze materials was one-way ANOVA, and Duncan certification,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after certification.

This study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the basis of above investigation and analysis results.

First, in background variables, participants'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equipment possession or none possession and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levels -excluded gender and age. And participants who possessed equipments or high quality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howed higher recognition in pleasure, concentration and self-realization out of subordinat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excluding feeling of capability.

Second, the loyalty according to scuba diving participation degree showed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for one year to less than three year and more than three year showed higher recognition on loyalty than less than one year. In participation frequency,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more than four times a month recognized loyalty better than who participated one or two to three times per month

Third, in scuba diving participation degree,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more than three years showed meaningful

Key words: scuba diving participants' frequency of participation, loyal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ssi14381@nate.com

differences in subordinat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order of feeling of self-realization, pleasure, and feeling of concentration than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less than one year. And in participation frequency,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two to three per month or more than four times a month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order of feeling of self-realization, pleasure, and feeling of concentration than the participants who participated once a month.

Fourth, there was meaningful differe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the loyalty of scuba diving participants. The group who had higher loyalty recognized all subordinate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better.

Fifth, duration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which are the degree of scuba diving participation, influenced on the loyalty of scuba diving, and the loyalty influenced directl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cuba diving duration and frequency didn't influence directl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but by the medium of loyalty, it influenced indirectl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스포츠 중에서 특히 해양 레저스포츠는 자연을 대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동적이고 적극적인 야외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해양 레저스포츠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높은 육체적, 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레저스포츠 이다(박명국, 윤영선, 2005).

이러한 해양 레저스포츠 종목 중, 자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다(이종영, 1995).

최근 국제스포츠 심리학회(ISSP, 1992)에서는 개인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할 수 있고 운동지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발하고 비경쟁적인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체활동 중에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신비의 세계로만

생각하는 바다와 수중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험스포츠로서 가질 수 있는 부정적 영향만을 고려해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참가는 스트레스 해소, 체력향상 및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참가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신체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형남, 1999, 남재화, 김진철, 1999; 윤상문, 2005) 또한 류재청(2005)은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참여는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정신건강상태를 개선 및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는 육상이나 수면의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정 또는 몇몇 선택된 스포츠 활동을 선호하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개인들의 성향으로 정의되는 스포츠 활동 애호도(sport activity loyalty)는 개인들이 다른 것은 배제하고 선택된 활동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의미(Backman & Crompton, 1991)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애호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심리적 웰빙 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실제로 양명환(2000)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애호도가 심리적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한 결과 스포츠 활동 애호도 유형에 따라서 정서적-인지적 상태 요인들의 평균값이 모두

같지 않았으며 높은 애호도 집단이 심리적 웰빙의 모든 변인들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가 심리적 행복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기능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오고 있다. 김수점·이후춘(2005)은 참여시간이 길수록 인지된 자유감이 커지고, 인지된 자유감의 하위 영역인 여가 자신감과 조절력이 클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커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김덕진·양명환(2004)은 활동에 참여했을 때, 참여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인지적-정서적 상태, 생활만족, 교육만족도의 심리적 행복 변인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용어는 전형적으로 개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정도로 정의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쾌락적 행복, 즉 인간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믿음 뿐 만 아니라 이 믿음과 함께 수반되는 유쾌한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경험을 일컫는 개념으로 간주되기도 한다(Yardley & Rice, 1991, 김덕진, 양명환, 2004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웰빙(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보다는 활발한 신체활동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에 기초하여 정의(양명환, 1998)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최정도·문태영(2006)은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 간의 관계는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해양스포츠 참여가 건강한 삶의 질적인 활력소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에 있어서 생활적인 만족은 물론 신체적, 사회일반적인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참여와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참여가 심리적

웰빙 변인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택한 스포츠의 애착수준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탁월한 신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수중 레저스포츠 활동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의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스쿠버 다이빙 활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회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중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남·여 44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265명의 자료만을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	계
성별	남	190(71.7%)	265(100%)
	여	75(28.3%)	
연령	20대	73(27.5%)	265(100%)
	30대	132(49.8%)	
	40대이상	60(22.6%)	
	오픈워터(초급)	117(44.2%)	
자격수준	어드밴스(중급)	73(27.5%)	265(100%)
	마스터이상(고급)	75(28.3%)	
장비보유	유	184(69.4%)	265(100%)
	무	81(30.6%)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의 배경 변인에 관한 항목 4문항, 참여정도에 관한 항목 2문항, 애호도에 관한 항목 10문항, 심리적 웰빙에 관한 항목 20문항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성내용과 문항 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참여자 배경변인	성별(1), 연령(1), 자격수준(1), 장비보유 유무(1)	4
참여수준	기간(1), 빈도(1),	2
애호도	애호도(10)	10
심리적 웰빙	자아실현(5), 몰입감(5), 쾌락적즐거움(5), 유능감(5)	20
총 문항		36

1) 애호도

애호도에 대한 측정은 Siegenthaler와 Lam(1992), Carmack과 Martens(1979)의 질문지를 기초로 양명환(1998)에 의해 개발된 테니스 애착 측정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안 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지는 선행연구에서 활동 충성도 측정에 있어서 활동에 대한 정의적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측정지로 참여의도, 매력, 활동의 가치, 몰두, 즐거움, 친밀감, 선호도등 공약과 애착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형태는 1)“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의 척도의 신뢰도는 항목 전체 척도간의 상관계수가 .55-.73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Alpha 값이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8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다.

측정된 점수들은 합하여 중앙치 반분법(median-splitmethod)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집단과 낮은 점

수를 얻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높은 점수, 즉 중앙치 이상의 득점자는 스쿠버 다이빙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은 것을 나타내며 중앙치 이하의 득점자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심리적 웰빙

심리적 웰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환(2000)이 레저스포츠 활동 상황에 맞도록 개정한 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안 후 사용하였다. 인지적-정서적 상태 척도는 자아실현, 유능감, 몰입감, 쾌락적 즐거움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5문항씩 총 20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이므로 별도의 타당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응답의 형태는 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자아실현 a=.80, 쾌락적 즐거움 a=.81, 몰입감 a=.70, 유능감 a=.85 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절기 상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2006년 6월~9월에 걸쳐 제주도 일대의 다이빙 포인트 및 리조트, 교육장에 방문하였다. 다이빙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휴식시간을 이용, 본 연구자가 직접 현장에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뒤, 자기기입 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기입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배부된 설문지는 총440부 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되었거나 항목이 빠지거나 무기입된 자료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265부가 자료 분석에 활

용되었다. 분석 가능한 자료를 Windows용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의 배경변인, 참여정도, 애호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의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표 3>은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 여 모두 모든 변인에서 평균값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성별		F	P
	남(n=190)	여(n=75)		
쾌락적 즐거움	4.17±.58	4.17±.50	.015	.902
몰입감	4.12±.54	4.11±.51	.059	.809
유능감	3.87±.68	3.76±.68	1.574	.211
자아 실현감	3.91±.63	3.77±.57	2.798	.096

<표 4>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연령에 따라서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대보다 30대와 40대가 모든 변인에서 평균 값이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연령			F	P
	20대 (n=73)	30대 (n=132)	40대이상 (n=60)		
쾌락적 즐거움	4.15±.57	4.19±.55	4.16±.59	.125	.882
몰입감	4.11±.52	4.13±.52	4.10±.56	.106	.899
유능감	3.90±.65	3.77±.72	3.93±.63	1.466	.233
자아 실현감	3.76±.65	3.91±.60	3.90±.60	1.370	.256

<표 5>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장비보유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실현감과 쾌락적 즐거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능감은 유의수준 .081 수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90%신뢰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장비보유 유무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장비보유		F	P
	유(n=184)	무(n=81)		
쾌락적 즐거움	4.25±.55	3.99±.54	13.600	.000
몰입감	4.18±.54	3.98±.48	8.831	.003
유능감	3.89±.69	3.73±.64	3.063	.081
자아 실현감	3.96±.63	3.66±.53	13.752	.000

<표 6>은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격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능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자격수준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인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인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쾌락적 즐거움과 자아실현은 오픈워터 자격수준의 초급과정 자격수준을 가진 참여자보다 마스터이상의 고급과정 자격수준을 가진 참여자들이 더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몰입감에서는 초급과정의 오픈워터 수준의 참여자보다 중급과정의 어드밴스, 고급과정의 마스터이상의 자격수준을 가진 참여자가 몰입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격수준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자격수준			F (df=2, 262)	P
	오픈워터 (n=117)	어드밴스(n=73)	마스터이상(n=75)		
쾌락적 즐거움	4.06±.52a	4.21±.59ab	4.31±.56b	5.158	.006
몰입감	4.01±.47a	4.17±.60b	4.24±.53b	5.178	.006
유능감	3.75±.67	3.88±.69	3.93±.69	1.812	.165
자아 실현감	3.72±.53a	3.89±.64ab	4.07±.65b	7.740	.001

* abc 문자는 Duncan사후검증 결과로서 문자가 서로 다르면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이하동일

2 참여정도에 따른 애호도의 차이

<표 7>은 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참여기간에 따른 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결과 참여기간이 1년 미만보다 1년~3년 미만, 3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애호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참여기간에 따른 애호도

변인	참여기간			F (df=2, 262)	P
	1년미만 (n=101)	1년~3년미만 (n=61)	3년이상 (n=103)		
애호도	3.82±.54a	4.12±.56b	4.23±.57b	14.571	.000

<표 8>은 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참여빈도에 따른 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결과 월1회, 월2~3회의 참여자들보다 월 4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애호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참여빈도에 따른 애호도

변인	참여빈도			F (df=2, 262)	P
	월1회 (n=117)	월2~3회 (n=87)	월4회이상 (n=61)		
애호도	3.91±.50a	4.05±.65a	4.30±.58b	9.540	.000

3 참여정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표 9. 참여기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참여기간			F (df=2, 262)	P
	1년미만 (n=101)	1년~3년미만 (n=61)	3년이상 (n=103)		
쾌락적 즐거움	4.05±.53a	4.15±.53ab	4.30±.58b	5.469	.005
몰입감	4.01±.50a	4.10±.50ab	4.24±.56b	5.017	.007
유능감	3.73±.68	3.82±.57	3.96±.72	2.847	.060
자아 실현감	3.70±.54a	3.86±.59ab	4.03±.66b	7.813	.001

<표 9>는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 요인 모두 1년 미만의 참여자들 보다 3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여빈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참여빈도			F (df=2, 262)	P
	월1회 (n=117)	월2~3회 (n=87)	월4회이상 (n=61)		
쾌락적 즐거움	4.04±.51a	4.23±.59b	4.34±.56b	6.984	.001
몰입감	4.02±.47a	4.19±.60b	4.22±.52b	4.018	.019
유능감	3.68±.67a	3.90±.68b	4.07±.63b	7.588	.001
자아실현감	3.68±.55a	3.97±.63b	4.08±.62b	10.966	.000

<표 10>은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결과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 모든 요인에서 월 1회 참여자들보다 월 2~3회, 월 4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애호도(높고, 낮음)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표 11. 애호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변인	애호도		F (df=1, 263)	P
	높음 (n=148)	낮음 (n=117)		
쾌락적 즐거움	4.47±.43	3.79±.46	151.972	.000
몰입감	4.37±.44	3.80±.46	102.732	.000
유능감	4.14±.62	3.46±.55	87.980	.000
자아실현감	4.19±.52	3.46±.47	140.303	.000

<표 11>은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애호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애호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호도가 높을수록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참여수준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의 관계

1) 참여정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표 12>는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의해 나타난 변인간의 상관행렬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 참여빈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참여기간만 유능감에서 유의수준 .05의 상관을 보이고 그 외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유의수준 .01의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요인들 중 특히 애호도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과 전체 심리적 웰빙에 .545~.750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2. 참여정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변인	기간	빈도	애호도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	전체심리적 웰빙	M±SD
기간	1.000	.252**	.308**	.199**	.191**	.145*	.254**	.222**	2.01±.88
빈도		1.000	.257**	.222**	.161**	.233**	.269**	.259**	1.79±.79
애호도			1.000	.714**	.660**	.545**	.695**	■	4.04±.58
쾌락적 즐거움				1.000	.747**	.573**	.745**	.877**	4.17±.56
몰입감					1.000	.550**	.698**	.852**	4.12±.53
유능감						1.000	.656**	.825**	3.84±.68
자아실현감							1.000	.899**	3.87±.62
심리적 웰빙								1.000	4.00±.51

*p<.05, **p<.01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만으로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들은 참여정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의 세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2) 참여정도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표 13>은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참여정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Beta)를 사용하였고 모든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는 .145~.269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과 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자아실현감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62)=15.036, p<.000].

표 13. 참여정도와 심리적 웰빙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B	표준 편차	계수 (Beta)	t	p
쾌락적 즐거움	기간	.097	.039	.153	2.480	.014
	빈도	.130	.043	.183	2.980	.003
	상수	3.689	.112			
R=.267, R ² =.071, F(2, 262)=10.018, p<.000						
몰입감	기간	.097	.038	.161	2.587	.010
	빈도	.080	.042	.120	1.932	.054
	상수	3.715	.107			
R=.224, R ² =.050, F(2, 262)=6.911, p<.001						
유능감	기간	.071	.048	.092	1.487	.138
	빈도	.180	.053	.210	3.400	.001
	상수	3.333	.136			
R=.250, R ² =.062, F(2, 262)=8.721, p<.000						
자아 실현감	기간	.127	.042	.181	2.990	.003
	빈도	.173	.047	.223	3.695	.000
	상수	3.202	.120			
R=.321, R ² =.103, F(2, 262)=15.036, p<.000						

표준화 회귀계수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빈도(Beta=.223)가 참여기간 (Beta=.181)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쾌락적 즐거움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7.1%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62)=10.018, p<.000].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빈도(Beta=.183)가 참여기간(Beta=.153)보다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몰입감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0%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62)=6.911, p<.001].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몰입감 요인에는 참여기간(Beta=.161)만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유능감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6.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62)=8.721, p<.000].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빈도(Beta=.210)만이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의 참여기간 보다는 참여빈도가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표 14>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애호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단순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Beta)를 사용하였고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545~.714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전체 설명력과 회귀식의 통계수준은, 먼저 쾌락적 즐거움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1%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63)=273.370, p<.000]. 자아실현감 요인에 전체 설명력은 48.3%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F(1, 263)=245.541, p<.000]하게 나타났고, 몰입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42.2%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63)=192.029, p<.000]. 유능감 요인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4.5%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263)=111.243, p<.000]. 표준

화 회귀계수 기준으로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애호도가 높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쾌락적 즐거움(Beta=.714), 자아실현감(Beta=.695), 몰입감(Beta=.650), 유능감(Beta=.5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정서적 애착 수준이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애호도와 심리적 웰빙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eta)	t	P
		B	표준 편차			
쾌락적 즐거움	애호도	.743	.045	.714	16.534	.000
	상수	.944	.189			
	R=.714, R ² =.510, F(1, 263)=273.370, p<.000					
몰입감	애호도	.714	.052	.650	13.857	.000
	상수	1.105	.214			
	R=.650, R ² =.422, F(1, 263)=192.029, p<.000					
유능감	애호도	.467	.044	.545	10.547	.000
	상수	2.251	.173			
	R=.545, R ² =.297, F(1, 263)=111.243, p<.000					
자아 실현감	애호도	.658	.042	.695	15.670	.000
	상수	1.499	.164			
	R=.695, R ² =.483, F(1, 263)=245.541, p<.000					

4) 참여정도, 애호도 및 전체 심리적 웰빙의 관계

<표 15>는 전체 심리적 웰빙에 대한 애호도와 참여정도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표준화 계수(Beta)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145~.899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애호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2.9%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62)=19.462, p<.000].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는 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기간(Beta=.260)이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빈도(Beta=.192)도 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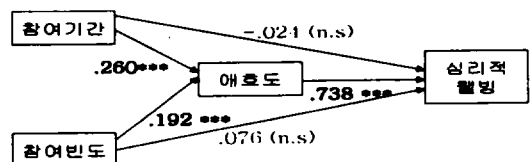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참여기간이 길고 참여빈도가 높은 참여자들이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5. 참여정도, 애호도 및 전체 심리적 웰빙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Beta)	t	P
		B	표준 편차			
애호도	기간	.172	.040	.260	4.362	.000
	빈도	.141	.044	.192	3.217	.001
	상수	3.447	.102			
R=.360, R ² =.129, F(2,262)=19.462, p<.000						
심리적 웰빙	기간	-.014	.025	-.024	-.555	.579
	빈도	.049	.028	.076	1.769	.078
	애호도	.651	.038	.738	16.919	.000
상수	1.307	.147				
R=.753, R ² =.568, F(3, 261)=114.259, p<.000						

이어서 전체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 참여빈도, 애호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56.8%로 나타났다.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3, 261)=114.259, p<.000]. 표준화 회귀계수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한 결과, 애호도(Beta=.738)만이 전체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참여기간(Beta=-.024), 참여빈도(Beta=.076)는 전체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빈도와 참여기간 보다는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에 상대적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는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애호도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웰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도형

V. 논의

1. 배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배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요인에서 남녀 모두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운주(2002)가 스포츠 참여와 심리적인 행복감과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면서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김진욱(2004), 박종민(2002), 문영희(2003), 백혜경·남사웅(2005) 등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더구나 스쿠버 다이빙은 경쟁적이거나 탁월한 신체능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느끼게 되는 만족의 느낌에서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 간에도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매희·윤지희(2006)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며 최정도·문태영(2006)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몰입, 생활만족, 자아효능감의 차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일반적 자아효능감에서만 20대 이하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가몰입, 생활만족, 신체적 자아효능감에서는 연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해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활동은 종목의 특성상 탁월한 신체능력을 요구하는 스포츠가 아니며 인간이 미지의 세계로 생각하는 수중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에 몰입하거나 도취되는데 있어 연령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어떠한 스포츠이든 참여

하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높다고 해서, 또는 낮다고 해서 자신이 도전하고 참여하는 활동 후 느끼게 되는 유능감, 자아실현감등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비보유 유무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백혜경·남사웅(2005)의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장비보유 유무에 따른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여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요인만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여가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고흥남(1999)의 연구에서도 공용 및 대여 장비를 사용하는 참여자보다 개인장비를 소유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몰입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는 몸에 맞춰져 있지 않은 새로운 장비를 계속해서 렌트해 쓰기 보다는 자신의 장비를 보유함으로써 장비에 새로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는 참여자들이 즐거움이나 만족의 느낌에서 심리적 웰빙 요인들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격수준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 간에는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이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쿠버 다이빙 자격수준이 높은 고급과정 수준의 참여자들이 사회, 심리적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윤상문(200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최정도(2004)는 사회, 심리, 신체적 만족에서 스쿠버 다이빙 초급과정 수준보다 고급과정 수준에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남재화·김건철(1999)은 스쿠버 다이빙 동호인을 대상으로 스쿠버 다이빙 참가수준과 참가형태 및 신체적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쿠버 다이빙 자격수준이 높은 단계에서 신체적 자아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수준이 낮은 참여자 보다 고급과정 수준의 참여자들이 쾌락적 즐거움이나 몰입감 등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능감 요인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은 활동의 특성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격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준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활동에 대한 자신감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성별과 연령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녀모두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높게 지각하고 있고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스쿠버 다이빙이 더 이상 젊고 건강한 남성들만이 향유하는 레저 스포츠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서의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성부력 상황에서의 활동이 가능한 레저 스포츠라는 점은 오히려 연령이 많은 참여자들에게 권고할 만한 레저 스포츠라 사료된다.

2. 참여정도에 따른 애호도의 차이

참여정도에 따른 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기간과 참여빈도에 따른 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이 긴 참여자 일수록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애호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4회 이상의 높은 참여빈도를 나타내는 참여자들이 애호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의 목적이 다르고 맥락의 차이는 있으나 박재환(2006)의 휘트니스클럽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이용 빈도와 이용기간에 따라 고객 충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와는 상반

되는 결과이나 홍석표(2006)의 스포츠 참가자의 로열티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행동적 로열티를 설명하는데 있어 참여빈도와 강도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교적 양호한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김문선(2005)의 생활체육 참여만족도가 스포츠관여도와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체육 참여정도의 하위요인을 빈도, 기간, 강도로 하고 고객태도를 이용시설에 대한 충성도로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 참여 정도의 빈도와 강도가 높을수록 이용시설 충성도가 높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참여정도는 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활동으로의 참여 기간이 길고 참여 빈도가 높은 참여자 일수록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반복적인 활동 참여로의 유도보다는 활동에 대한 애호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애호도 형성을 위한 노력은 반대로 스쿠버 다이빙 활동으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의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참여정도(기간, 빈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스쿠버 다이빙 참여 기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에서는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 1년 미만의 참여자들보다 3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쾌락적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정도·문태영(2006)의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기간이 6-8년 이상 집단이 4-6년 집단보다 여가몰입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며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몰입수준이 높다는 연구(이광수, 2003; 이상구, 임준택, 2003; 이재형, 2005)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또한 윤상문(2005)의 연구에서 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시설만족 요인으로 보고 스쿠버 다이빙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에서 경력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경력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활동은 활동 자체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행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 자체에 몰입하거나 도취되어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지각함으로써 자기표현, 자기발전 등과 같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김덕진, 양명환, 2004)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경험의 결과로서 심리적 웰빙 요인들이 향상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능감 요인에서 차이가 없는 것은 스쿠버 다이빙은 참여기간과 활동 후 기록하는 다이빙 횟수가 직선 비례적이기 않고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과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이 유능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 빈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결과 월1회보다 월2~3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유능감, 자아실현감 모든 요인에서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정도(2004)의 스쿠버 다이빙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소비자 세분화에 관한 연구에서 참가 빈도간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 시설만족, 신체적 만족요인 모두에서 참여빈도가 주4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으며 최정도·문태영(2006)의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주1회 이상 집단이 월1회, 월2-3회 집

단보다 여가몰입, 생활만족, 신체적 자아효능감, 사회 일반적 자아효능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쿠버 다이빙 활동으로의 지속적인 참여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웰빙 요인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회원 및 지도자들에게 적극적인 스쿠버 다이빙 활동으로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활동으로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는 실내 풀(pool) 설치와 같은 제반 여건의 필요성과 고질병 같은 지역 내 어촌계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도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료된다.

4. 애호도(높고, 낮음)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애호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에서는 애호도가 높은 참여자들에게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입감, 유능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의 목적이나 맥락의 차이는 있으나 오준석·노동연(2005)은 스포츠 센터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고객만족은 고객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종목의 상이함은 있으나 양명환(1998)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44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가스포츠 활동 애호도와 심리적 행복감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유능감 요인 순으로 애호도가 행동적 참여 상, 하 집단을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애착수준이 특정한 일에 각별하게 강한 참여가 있을 때, 활동 참여 중에 충만감을 느끼거나 진실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느낌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

사해 주는 것이며 한정된 자극으로의 주의집중, 시간 감각 상실 등의 몰입경험도 정서적 애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Assael(1984)의 애호도가 소비자의 의도, 즉 심리적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주장과, 개인들의 헌신(commitment)또는 애착수준이 개인들이 참여하게 될 레저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Crompton & Lamb(1986)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양명환, 2000).

또한 본 연구에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 참여자들의 정서적 애착수준인 애호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은 애호도가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웰빙 요인들에 매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참여했을 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적 참여수준이 높고 애호도 수준도 높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참여수준, 애호도, 심리적 웰빙의 관계

1) 참여정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의 상관관계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 애호도, 심리적 웰빙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참여정도의 하위요인인 참여기간만 유능감에서 유의수준 .05의 상관을 보이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유의수준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간과 빈도는 애호도와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 및 전체 심리적 웰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 < .01$)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애호도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과 전체 심리적 웰빙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참여정도(기간, 빈도)와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이 이러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참여정도(기간, 빈도)가 높고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 참여정도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과 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

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유능감만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참여기간과 빈도가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감에는 참여 빈도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 계수 기준으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참여빈도가 참여기간에 비해서 쾌락적 즐거움, 유능감, 자아실현감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기간은 유능감 요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몰입감 요인에는 참여빈도 보다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정도·문태영(2006)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와 자아효능감 간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으며 해양스포츠 참여가 건강한 삶의 질적인 활력소 역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에 있어서 생활적인 만족은 물론 신체적, 사회일반적인 자아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종목의 상이함은 있으나 박병훈·임상용(2005)의 대학 검도동아리 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참여정도 및 여가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참여정도는 여가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여가만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빈도가 기간보다 자아실현감,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에 더 높은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나 유진·김석일(2004)의 운동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기간별에 따른 심리적 웰빙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장기집단이 단기집단보다 대체적으로 더 높고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과 빈도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애호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분석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준화 회귀계수 기준으로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 애호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 몰입감, 유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비교하여 대상이나 스포츠 참여 유형 설정과는 상이하지만 양명환(2000)이 스포츠 활동의 정서적 애착에 미치는 인지적-정서적 상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이 48%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자아실현감(Beta=.328), 쾌락적 즐거움(Beta=.265), 몰입감(Beta=.250)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조송현·이정훈(2005)은 학생만족은 애호도(Beta=.745)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대상과 종목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김광기(2005)는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 몰입, 충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이 높을수록 충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애호도와 만족의 개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활동에 대한 애호도 수준은 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들에도 높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애호도 수준에 따라서 참여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는 심리적 웰빙 변인들도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애호도를 측정함으로써 활동을 중시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참여정도, 애호도 및 전체 심리적 웰빙의 관계

애호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는 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어서 전체 심리적 웰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참여기간, 참여빈도, 애호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호도만이 전체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참여기간, 참여빈도는 전체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과 빈도보다는 애호도가 심리적 웰빙에 상대적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목의 상이함은 있으나 정용각·김윤정(2005)의 연구에서 에어로빅에 참가하는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도, 신체적 자기개념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모형을 분석한 결과 운동참여 정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직접효과로(Beta=.25)의 정적관계가 있으며 운동참여는 신체적 자기개념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운동을 하면 심리적 행복감이 증진되는 것은 신체적 자기개념 같은 다른 심리적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행복감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최정도·문태영(2006)은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가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이것은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몰입경험은 만족과 매우 높은 인과적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여가몰입을 빈번하게 경험할수록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원형중(1995), 정영린(199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백원철·김수경(2004)의 연구에서도 대상이나 요인의 차이는 있으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참여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여성의 주관적 행복감은 스포츠참여, 사회적 지원, 건강상태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건강하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높다고 보고해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쿠버 다이빙 참여 정도는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애호도가 높아짐으로서 심리적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웰빙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와 애호도는 심리적 웰빙을 구성하는 독립적이면서도 관련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인들이며 애호도와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참여만 한다고 해서 심리적 웰빙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정서적 애착수준이 높았을 때 심리적 웰빙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들의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웰빙, 참여정도에 따른 애호도, 참여정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애호도에 따른 심리적 웰빙 간의 차이, 그리고 참여정도와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계기법으로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후 검정으로 Duncan 검정,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배경변인 중 성별과 연령을 제외한 장비보유 유무와 자격수준에 따라 심리적 웰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 중 유능감을 제외한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자아실현감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고급과정 자격수준을 가진 참여자들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둘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에 따른 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들보다 1년~3년 미만, 3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애호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참여빈도는

월1회, 월2~3회 참여자들보다 월4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애호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셋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 중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참여자들보다 3년 이상의 참여자들이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인 자아실현감,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참여빈도는 월 1회의 참여자들보다 월 2~3회, 월4회 이상의 참여자들이 자아실현감, 유능감, 쾌락적 즐거움, 몰입감 순으로 심리적 웰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자의 애호도에 따라 심리적 웰빙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애호도가 높은 집단에서 모든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들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스쿠버 다이빙 참여정도인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는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 심리적 웰빙에 애호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쿠버 다이빙 참여기간과 참여빈도는 전체 심리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애호도를 매개 변인으로 전체 심리적 웰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참여만 한다고 해서 심리적 웰빙 요인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애호도가 높았을 때 심리적 웰빙 요인들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궁극적 연구문제인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밝히기 위한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대학생과 일반인을 통합하여 비교하였으나 근래 들어 각 대학마다 스쿠버 다이빙 교과목 개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연구 대상자의 세분화를 통한 연구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정도, 애호도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분석이 주가 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연구도 병행될 필요

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현숙·김백운·박미진·신영호(2005). 태극권 수련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869-876.
- 고형남(1999). 스킨 스쿠버 참가수준과 물입경험 및 건강증진 생활양식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김광기(2005). 레저스포츠시설 이용자들의 서비스만족, 물입충성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509-517.
- 김경식(1996). 대도시 노인의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덕진(2002).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유형과 활동만족, 활동계약 및 대학생활만족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덕진·양명환(2004).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참여가 심리적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57-169.
- 김덕진·양명환(2006). 체육수업 상황에서 기본적 욕구, 동기 유형 및 심리적 웰빙간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7(1), 25-45.
- 김문선(2005). 생활체육 참여만족도가 스포츠관여도와 고객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석일(2004). 건강인지와 운동참여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한국스포츠리서치**, 15(5), 3-18.
- 김석일(2004). 생활체육 활동 참여자들의 심리적 웰빙 프로파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6), 193-203.
- 김선규(2005). 웰빙(Well-being)문화와 관련한 신개념 김치냉장고 디자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소연(2006). 대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 심리적 웰빙 및 행동의도간의 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겸·이후춘(2005). 불링참여자의 인지된 자유감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323-335.
- 김우현(2003). 보디빌딩 참가자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욱(2004). 생활체육 테니스 동호인의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만족도 연구.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재화·김건철(1999). 스킨 스쿠버 참가수준과 참가형태 및 신체적 자아효능감의 관계. **한국레크리에이션교육학회지**, 1(1), 109-122.
- 류재청(2005). 스쿠버다이빙활동이 중년여성의 정신건강과 유산소성 운동능력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4), 265-278.
- 마석렬(2001). 노인의 스포츠참여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간의 인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2(1), 51-64.
- 문영희(2003). 불링참가자의 참여동기가 물입경험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국(2001). 레저스포츠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해양 레저 스포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국·김기호(2002). 스킨스쿠버 소비자의 참여형태 및 만족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지**, 22(1), 127-139.
- 박명국·윤영선(2005). 레크리에이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의 마케팅믹스 요인이 충성도 및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9, 95-108.
- 박병훈·임상용(2005). 대학 검도동아리 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참여정도 및 여가만족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0(1), 51-68.
- 박상욱·김목수·송우엽(1998). 청소년의 여가 활동이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논집**, 3, No.
- 박재환(2006). 휘트니스클럽 서비스품질과 서비스가치, 고객만족 및 고객충성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45(5), 301-311.
- 방신용(2002). 스포츠 센터의 서비스품질과 애착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05). 댄스스포츠 참여에 따른 몰입경험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551-559.
- 박유진(2002). 여가경험과 여가경제성 현출성이 여가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종민(2002). 대학생의 생활체육 참여와 여가 및 생활만족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원철·김수겸(2004). 성인여성의 스포츠참여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6), 249-260.
- 백혜경, 남사용(2005). 스쿠버 다이빙 활동참여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체육과학 연구**, 11, 65-76.
- 송은주·임수원·김정자(2006). 댄스스포츠 몰입경험이 여가 정체성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581-590.
- 수중세계(2006). **수중세계 1-2월호** No. 104, 152-155.
- 안정기(1999). 서비스애호도와 재구매 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환(1998) 신체활동과 심리적 행복감: 인지적-정서적 상태 측정지 개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2), 113-124.
- 양명환(2000) 교사들의 스포츠 활동 애호도가 심리적 행복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4(2), 182-199.
- 양명환, 이창준, 남사용(1997) 테니스 활동 충성도와 제약 지각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 3, 3.
- 양명환(2004). 직장인들의 운동 참여동기,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간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197-215.
- 오준석·노동연(2004). 타이틀 스폰서십 활동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가 브랜드 인지도 및 브랜드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체육과학 연구논총**, 14(1), 41-52.
- 오준석·노동연(2005). 스포츠 센터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3, 175-184.
- 원두리·김교현(2006). 심리적 웰빙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웰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25-145.
- 원형증(1995). 청소년의 중독성 물질남용, 여가참여, 여가관태, 여가만족의 인과적 모형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2, 46-57.
- 유진·김석일(2004). 운동 참여자들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4), 85-106.
- 윤상문(2005). 스쿠버다이빙 참여활동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413-422.
- 염계화(2005).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생성감과 심리적 웰빙.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기화(2005). 스쿼시 운동의 참여동기와 참여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수(2003).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 스포츠 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덕성·박말분·석강훈(2006). 탁구동호인들의 탁구참여정도가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603-615.
- 이상구, 임준택(2003). 성인의 익스트림 스포츠 참가정도가 몰입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1373-1384.
- 이성철(1996). 노인의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영우(1998). 상표 애호도의 유형구분에 따른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주(2002).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른 자긍심,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석·이종영(2002). 스킨·스쿠버 다이빙 참가자의 몰입경험이 인지된 자유감과 신체적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337-348.
- 이재형(2005). 모험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 및 참여동기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4), 207-217.
- 이종영(1995). 사회체육과 스쿠버다이빙. **제4회 한국체육대학교 잠수학술 발표회 자료집**. 서울 : 한국체육대학교 합동강의실.
- 이창기(2003). **생활체육 참여자의 참여동기가 직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혁(2006). 여성노인의 생활체육참여정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425-438
- 임상용(1995). 스포츠 활동참여와 생활만족 및 우울성향 간의 관계. **제주대학교 체육과학연구 창간호**, 174-183.
- 임성호·정기채·이기봉(2003).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의 참여 동기와 만족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 893-903.
- 임현정(2005). **소비자 만족도와 애호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매희·윤지희(2006). 생활체육 참여 동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7(1), 299-308.
- 전영린(1997).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정용각·김윤정(2005). 에어로빅스 참가자의 참여정도, 신체적 자기개념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6(1), 47-62.
- 조광행·박봉규(1999). 점포충성도에 대한 전환장벽과 고객만족의 영향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28(1), 127-149.
- 조송현(2002) **참여스포츠의 서비스품질과 고객애호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송현·이정훈(2005). 교양체육의 서비스품질과 학생만족 및 애호도의 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0(1), 35-49.
- 최소영(1995). **서비스 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도(2004) **스쿠버다이빙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한 소비자 세분화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정도, 문태영(2006). 해양스포츠 참여정도에 따른 여가몰입과 생활만족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45(3), 191-202
- 최청락(2006) 스쿠버다이빙의 관여도수준과 다이빙 횟수에 따른 교육만족도와 참여의도의 차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1(1), 65-75.
- 추혜연(2004) 무용 전공별 심리적 행복감의 차이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43(2), 425-431.
- 하지선(2005). **공공스포츠시설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및 고객애호도의 관계**.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석표(2006). 스포츠 참가자의 로열티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편**, 45(6), 409-418.
- Aaker, D.(1991). *Managing brand equity: Capitalizing on the value of a brand name*. New York, N.Y.: The Free Press.
- Assael. H.(1984). *consumer behavior and marketing action*. Boston, M.A.:Kent Publishing.
- Backman, S. J., & Crompton, J. L.(1991) Differentiating high, spurious, latent, and low loyalty participants in two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9, 1-12.
- Berger, B.G., & Owen, D.R.(1988). Stress reduction and mood enhancement in four exercise models: Swimming, body conditioning, hatha yoga, and fenci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9, 148-159.
- Bryant, F, B., & Veroff, J. (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 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3(4), 653-673.
- Buchanan, T.(1985). Commitment and leisure

- behavior: A theoretical perspective. *Leisure Sciences*, 7, 401-420.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hekola, M. G. (1975). The concept of happiness. *University of Michigan*.
- Crompton, J., & Lamb, C.(1986). *Marketing government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Diener, E. (199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 Diener, E. Larsen, R. J., Levine, S, & Emmons, R. A. (1985). An evalu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 Dishman, R. K. (1985). *Medical psychology in exercise and Sport Medical Clinics of North America*, 69, 123-143
- Dishman, R. K, & Guttman, L. R. (1980). Psychobiologic Influence on Exercise adherence.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295-310.
- Inglehart, R.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and recreation.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ISSP(1992). International Social of Sport Psychology: A position statement. *The Sport Psychologist*, 6, 199-203
- Martisen, E. W. (1990). Benefits of exercise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Sport Medicine*, 9, 380-389.
- Oliver, Richard L(1989). "Processing of the satisfaction reponse in consumption: A suggested framework and research propositions",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ing Behavior*, 2, 1-16.
- Raglin, J.S. & Morgan, W. P.(1987). Influence of exercise and blood pressure.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 and Exercise*, 19, 456-463
- Ryan, R. M. & Deci, E. L.(2001). On happiness &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achs, M. L., & Buffone, G. W.(1984). *Running as therapy : An intergrates approach*.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esch, S. Whitbourne, S. K., & Nehrke, M. F.(1981). Friendship, social interaction and subjective well being of older men in an institutional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n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3, 317-327.
- Thoits, P. A.(1983). Multiple identities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Turner, R. J.(1981).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57-367.
- WHO Official Definition of Health(1974): Health is not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but a sate of complete physis, muntal, spiritual and social well-being.
- Yardley, J. K., & Rice, R. W(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mood and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01-111

접 수 일 : 2007. 07. 20.

게재확정일 : 2007. 08. 09.